

# ‘총기 탈취’ 후 곧바로 전남 왔다

## ■ 탈취 용의자 조모씨 서울서 검거

### 백양사 인근에 소총·수류탄 버려

강화 총기 탈취 용의자 조모(35)씨가 12일 경찰에 붙잡히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 7일 만에 막을 내렸다. 그동안 ‘오리무중’이었던 용의자는 자수 의사와 총기를 버린 장소 등을 알려주는 편지를 보낸 뒤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편지가 결정적 단서  
=총기 탈취범 조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은 전남 부산에서 발견된 편지의 지문이었다. 경찰은 예초 범행이 워낙 잔인하고 치밀해 군 특수부대 출신일 것으로 짐작하고 DNA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했으나 용의자의 윤곽을 전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발견된 편지 내용대로 탈취됐던 군용무기류 전량이 장성의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인근에서 발견됨에 따라 수사의 전기가 마련됐다.

경찰은 예초 편지 내용이 두서가 없어 장난 편지가 아니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 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봉투에 남아있던 지문을 채취,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탐문수사를 통해 은신처를 알아내고 잠복 끝에 조씨를 검거했다.

◇범행 후 전국일주=조씨는 범행 후 곧바로 경기도를 벗어나 전남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고속도로 장성 백양사 휴게소 인근에 탈취한 무기를 버린 것으로 미뤄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전남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산시 연제구 연산7동 한 우체통에서 조씨의 편지가 발견된 만큼 조씨는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 부산으로 향했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는 서울로 향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범행 후 전국을 U자 형태로 돈 셈이다.

밝혀진 행적만 따지더라도 총기를 탈취한 강화도에서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총기를 버린 장성군, 자수 편지를 보낸 부산 연제구, 검거된 서울 종로까지 이동 경로가 무려 1천600km에 달한다.

◇총기 수색·회수=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오전 7시부터 경찰 8개 중대와 경찰특공대 등 759명의 경력을 투입해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전남지방경찰청 감식반이 12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장성 백양사 휴게소 부근에서 발견한 소총·실탄·수류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다.

수색 시작 2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40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군 백양사 휴게소 부근 박성교 교각 아래 농로 등에서 K-2 소총 1자루와 탄환 15개가 들어 있던 탄창 1개를

이 발견된 살개천 인근에서 수류탄과 실탄 60발, 유탄 6발도 찾아냈다.

발견 당시 소총과 탄창은 교각 근처 땅바닥에 떨어진 채 5m 간격으로 놓여 있었으며 수류탄과 유탄 등도 인근에 놓여 있었다.

## ‘빵 뚫린’ 군·경 검문검색망

### 무기탈취범 전국 활보...전남경찰도 제지 못해

## 용의자는 일반병 출신 디자인업 종사자

수사본부부는 용의자의 수법으로 미뤄볼 때 해병대 또는 특수부대 전역자의 범행에 무게를 뒀으나 조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제대했을 뿐 특수부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디자인업에 종사해 왔으며, 별다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서울시 용산의 한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으며, 8개월간 월세가 밀려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 무기를 대량으로 탈취, 전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탈취 용의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을 누빈 것으로 드러나 군·경의 검문검색에 구멍이 뚫렸음을 반증했다.

용의자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 인천 강화도에서 이재혁(20) 병장과 박영철(20·사망) 상병 등 해병 병사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뒤 K-2 소총 1정·실탄 75발·수류탄 1발·유탄 6발을 빼앗아달

에서 10여km 가량 떨어진 화성 논바닥에서 차량을 불태운 뒤 미리 준비했던 다른 차량을 이용, 도주했다.

군용 무기 유기 장소를 명시한 편지가 부산에서, 탈취 무기가 백양사 휴게소 인근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볼 때 범행 후 1주일 사이 거의 전국을 누비고 다닌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군·경은 단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전남경찰도 사건 발생 이후 전남지역 목 검문소와 각 틀게이트에 2인1조로 무기를 휴대한 경찰을 24시간 배치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제 검문검색은 지난 10일 단 하루밖에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6시20분 갑오비상령을 통해 강화경찰서 전 경찰관을 소집하고 1분 뒤 갑오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 등 인접 서에 상황을 전파했다. 군 당국도 6시45분부터 군·경 합동 검문검색을 시작했다.

탈취범은 그러나 오후 7시10분 서울요금소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청북요금소를 통해 화성시 쪽으로 향했다. 또 청북요금소

에서 10여km 가량 떨어진 화성 논바닥에서 차량을 불태운 뒤 미리 준비했던 다른 차량을 이용, 도주했다.

군용 무기 유기 장소를 명시한 편지가 부산에서, 탈취 무기가 백양사 휴게소 인근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볼 때 범행 후 1주일 사이 거의 전국을 누비고 다닌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군·경은 단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전남경찰도 사건 발생 이후 전남지역 목 검문소와 각 틀게이트에 2인1조로 무기를 휴대한 경찰을 24시간 배치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제 검문검색은 지난 10일 단 하루밖에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6시20분 갑오비상령을 통해 강화경찰서 전 경찰관을 소집하고 1분 뒤 갑오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 등 인접 서에 상황을 전파했다. 군 당국도 6시45분부터 군·경 합동 검문검색을 시작했다.

탈취범은 그러나 오후 7시10분 서울요금소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청북요금소를 통해 화성시 쪽으로 향했다. 또 청북요금소

## 매월동 공구단지 단전 소동

### 1천500여 상가·우체국 등 2시간 큰 불편

#### 한전 “1억 체납 불가피”

12일 낮 1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광주시 서구 매월동 공구단지에 전력 공급이 차단됐다.

이로 인해 이 단지에 입주해 있는 1천500여 공구 상가와 우편취급소, 농협, 전화국 등의 업무가 차질을 빚어 큰 불편을 겪었다.

전력이 차단되자 공구상가 종사원들은 대부분 일손을 놓고 단지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일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우편취급소도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할 수 없어 50여 개의 우편물을 지연 발송했다. 서창농협 매월동 지점과 KT서광주지사 공구단지 전화국은 비상 발진기를 돌려야 했다. 캠퍼스

광주지사 등 사설경비업체들은 상가 내 고객 안전을 위해 10여 명의 경비인력을 투입, 비상근무를 섰다.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점은 “광주공구판매조합이 3개월 동안 1억1천600여 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불가피하게 전력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상가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기존의 관리주체였던 조합이 방만한 운영으로 파산한 뒤 상가 운영 주체가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리사무소로 분리되면서 관리비 납부율이 크게 떨어져 단전사태까지 빚었다”고 밝혔다.

/인한기자 ahj@kwangju.co.kr

## 니원침



## “두 여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 흥기강도 자매 저항에 도주 ‘덜미’

한밤중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으려던 강도가 자매의 격렬한 저항에 놀라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지난 3일 새벽 3시 광주시 북구 신안동 K빌라 1층 J(여·27)씨의 집. 강·철도 전과 8범 장모(40·광주시 북구 각화동)씨가 화장실에 있는 가로 40cm·세로 50cm 크기의 창문을 뜯고 몰래 들어갔다.

창문이 “돈을 달라”고 흥기로 위협하자 J씨는 “강도야!”라고 악을 썼다.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안니(30)가 함께, 몸싸움을 벌이자 깜짝 놀란 장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범인을 뒤쫓아 간 J씨 자매는 범인이 타고 달아난 구형 그랜저 승용차 번호(광주33라 35XX호)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매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 경북 경주시내 한 PC게임방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고도소 출소 후 먹고 살 길이 없어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두 여자가 너무나 무섭게 달려들어 도망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장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이 재판 패소 현역인데 할 뜻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던 인기 가수 사이(본명 박재상·사이)가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지방법원 무정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병무청은 사이에게 17일 입영 통지를 해놓았고, 사이는 이를 정지 시켜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낸 상태.

○재판부는 “공익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무만료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

## 건설사주 납치 지시 前 조폭 간부 구속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건설사주 납치사건과 관련, 범행을 교사한 폭력조직 국제 PJ파 전 간부 여모(54)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남구 국제호텔 사우나에서 건설사주 공모(47)씨를 납치하도록 부두목 등 조직원과 다른 조직 행동대원들에게 교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사주 납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모두 24명으로 늘게 됐고, 이 가운데 14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5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아~ 고구려여!

## 광개토태제시여!

### 이제 곧 부활의 문을 열겠다이다.